

절세와 투자에 取하다

세액공제로 세금은 줄이고, 다양한 투자로 수익률은 높이고, 자유로운 출납으로 자금 관리는 유연하게~

## 연금저축계좌로 세테크·재테크 하자!

## 연금저축계좌 활용 포인트

## 절세 + 투자 + 퇴직금 관리까지 가능한 수시입출금 절세 통장

수시입출금 가능  
절세 통장

- ① 세액공제 혜택 : 납입액의 13.2%(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액은 최대 52만 8천 원(납입금 400만 원 한도 × 13.2%)
- ② 종합과세 회피 : 운용수익 중도인출 시 16.5%(기타소득) 분리과세 종결  
- 고객 종합소득자(종합소득세율 16.5% 초과)의 경우 분리과세 절세 상품으로 활용
- ③ 자유로운 납입과 인출  
-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 납입 가능, 해지 없이 중도인출 가능

유연한 퇴직금  
관리 계좌

- 퇴직금 납입으로 퇴직소득세 이연 및 부분 인출 가능  
- (명예)퇴직금, DB 가입자의 퇴직연금일시금(만 55세 이후 수령 시)도 납입 가능  
- 부분 인출 가능해 유연한 자금운용 수단,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금 30% 감면

효율적인  
펀드 투자 수단

- 국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수익률 제고 및 단품 펀드 리스크 해소  
- 운용수익 인출 시까지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5.5%~3.3%) 과세
- 일반 펀드 대비 장점 다, 수시 인출도 가능  
- 계좌 내 펀드별·기간별 손익 합산 과세, 환매수수료 부담 없는 교체매매, 펀드보수 저렴

자녀  
증여계좌

## 2310 적립식 펀드 증여 플랜

2310 증여란? 미성년 자녀, 손자에게 매월 23만 원씩 10년납으로 가입 시 증여세 사전 신고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

\* 10년간 누적원금은 2,760만 원, 증여세 신고금액은 1,984만 원(현재가치로 할인평가) → 미성년의 경우 10년 동안 2,000만 원 공제

## 연금저축계좌 개요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연령 제한 없음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DC/IRP 자기 납입금 포함)
가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단, 퇴직금은 5년 가입기간 요건 적용 배제
세액 공제	납입금의 13.2%(지방세 포함)만큼 절세 - 공제한도 : 400만 원(납입원금 기준) → 절세액 최대 52만 8천 원(400만 원 × 13.2%) ※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 추가 : DC/IRP 계좌 300만 원 →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투자 대상	국내외 연금 전용 펀드에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자유로운 펀드 교체 가능
중도 인출	제한 없이 가능, 단,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 舊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 인출 불가해 해지 후 인출 가능

## 업권별 연금저축상품의 종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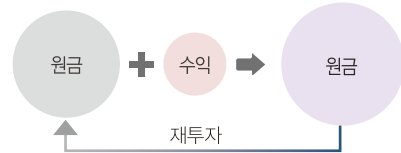
구분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보험	
			생보사	손보사
납입 방식	정기납 또는 자유납 선택		정기납만 가능	
상품 유형	채권형 : 채권에 60% 이상 투자 혼합형 : 채권 + 주식 주식형 : 주식에 60% 이상 투자	채권형 : 채권 안정형 : 채권 + 주식 10% 미만	금리연동형 :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	
적용 금리	실적 배당	실적 배당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有)	
원금 보장	비보장(기대수익률 高)	보장(기대수익률 低)		
예금자보호	미적용	적용		
수수료 부과 방식	적립금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 부과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수수료(예정사입비) 선(先) 차감 후 적립	
연금 수령 방식	확정기간형(기간 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또는 종신행	확정기간형 (최장 25년)

본 자료는 당사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 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해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혹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성 및 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운용상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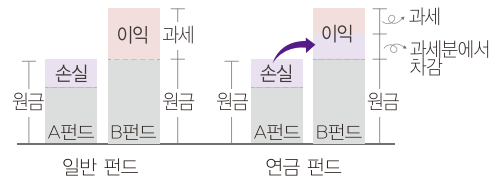
### 과세이연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이연, 인출 시 과세



### 손실상계(펀드별)

손실 발생분을 이익 발생분과 상계 : 펀드별 손익 합산



### 손실상계(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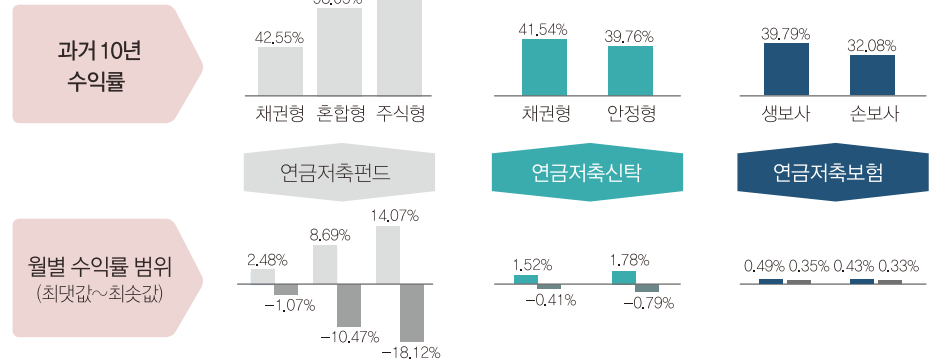
연금펀드는 투자 기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구분	투자손익_1년차	투자손익_2년차	투자손익_3년차	과세 대상
일반 펀드	1,000	1,000	-2,000	2,000
연금 펀드	1,000	1,000	-2,000	0

주) 일반 펀드의 투자수익은 과세 대상 수익만을 가짐. 연금펀드의 수익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

## 업권별 과거 운용성과 비교

주식형, 혼합형 펀드의 변동성 컸지만 장기 운용성과는 신탁 또는 보험 대비 탁월



주) 과거 10년간(2002.7~2012.6) 수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데이터임(과거 10년간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월 3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여 과거 실제 수익률을 기초로 산출).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리포트 「연금저축」, 2012.10

## 연금저축 세제

### 인출 순서

① 과세 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순으로 인출

과세 체계 |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하여 과세

연금 수령 조건 : ①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불필요)  
② 연령 만 55세 이후 ③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 인출 시 과세 체계

구분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연령	세율(지방세 포함)
과세 제외금액	과세 제외	과세 제외	만 70세 미만	연금소득세 5.5%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세액의 70%	이연퇴직세액(퇴직소득세)	만 70세~만 80세 미만, 종신형으로 수령	연금소득세 4.4%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 ~ 3.3%	기타소득세 16.5% (일반적인 사유로 인출 시)	만 80세 이상	연금소득세 3.3%

주) 이연퇴직세액 = 해당 퇴직소득 인출분 / 총 이연퇴직소득 납입액 × 총 이연퇴직세액

\* 각 항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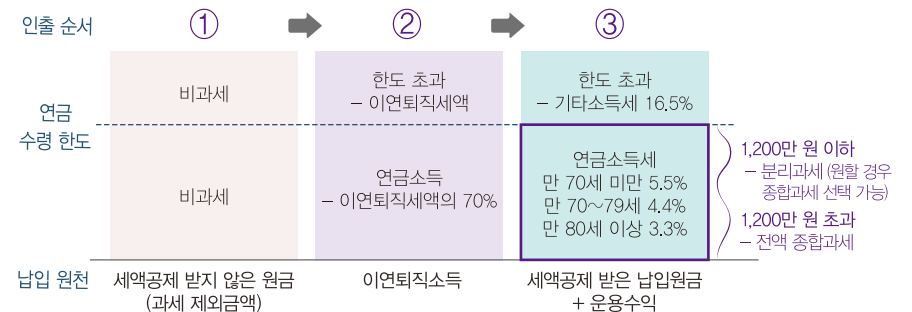
$$\text{연금 수령 한도} = \frac{\text{연금계좌 평가액}}{(\text{11-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 연금 수령 연차는 연령 조건(만 55세 이후) 및 가입기간 요건(5년 경과)을 동시 충족하는 시점부터 자동 기산 → 연금 개시 여부 불문  
※ 연금 수령 한도는 10년간 적용(11년차부터 연금 수령 한도 미적용). 단, 2013.2.28 이전 가입자는 5년간 적용(연령 및 가입기간 요건 동시 충족하는 시점에 6년차부터 기산)

## 연금 수령 한도 적용에 따른 과세 차이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으로 연금소득세로 과세

연금 외 수령 | 연금 수령 한도 초과금액 또는 연금 수령 개시 전 인출액으로 기타소득세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



주) 이연퇴직세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의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16.5%) 분리과세 종결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 연금소득(5.5%~3.3%) 분리과세 적용

※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등